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2강 모세의 방주

출애굽기와 창세기

1.1 선택적 은혜

출애굽기 1장은 독립적으로 시작될 수 없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대한 선이해가 요구된다. 출애굽기 1:1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진입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42장 이후에서 관찰된다.

출애굽기 1:7에는 하나의 선언이 확인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선언을 이미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 1:28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세기 1:28과 문자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창세기 1:28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본문에는 큰 차이가 등장한다. 창세기 1:28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피조된 모든 것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즉, 보편적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출애굽기 1:7에서 일반적 축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민족에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반 은혜가 선별적 은혜로 나타난 결과로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1.2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기 1장에는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치리하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 기록된 신 이해와 상충된다.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은 선언한다: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나는
비문	왕이 되었다. 아후라 마즈다는 나에게 왕권을 이양했다.

비록 시기적으로는 간격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신 이해는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이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은 ‘지배자의 신’ 이었고, 왕은 ‘신의 대리 통치자’로 해석되어 왔다.

그와 달리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피지배자의 신’이다. 그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성서 곳곳에서 등장한다.

출애굽기는 오늘날 삶과 무관한가? 성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고민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이방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장

2.1 모세의 방주

출애굽기 2장은 레위 지파에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도한다. 출애굽기 2:2은 이 아기의 외모가 잘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에 대해 이처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독특하다. 게다가 이러한 기록은 창조의 모습과 연결된다.

한 사람의 탄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창조 시 피조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동일하다.

처음에는 아기를 숨길 수 있었으나, 아이의 성장으로 인해 아기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세의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화가들이 이러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 표현하곤 했다.



Nicolas Poussin, The Exposition of Moses (대략 1650년경)



Orazio Gentileschi - 모세의 발견(1630-33)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 관찰된다. 바로 “상자”라는 단어 이다. 이 용어는 창세기 6-9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그것을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2:3, 5에서 유일하게 확인된다.

창세기 6-9장에는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서술이 담고 있다. 한글 성서로는 동일한 용어를 발견할 수 없지만, 히브리 성서를 본다면 모세를 담은 “상자”와 노아가 만들어 탄 “방주”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노아와 마찬가지로 ‘방주’를 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성서를 모세를 “제2의 노아”로 묘사하고 있다.

2.2 모세 방주 사건의 결과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는 방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제시한다. 창세기는 신인류가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묘사한다.

모세의 방주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명확히 구분된다. 노아 이야기는 보편적 인류를 서술하고 있다면, 모세의 방주 사건의 결과는 결코 보편적 인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끈 영도자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비로소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보려는 시도도 존재하지만, 성서는 야곱의 70명 되는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고 보도할 뿐이다. 따라서 실제적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모세의 방주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출애굽기 1-2장은 창세기의 원역사와 적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 그로 인해 출애굽기는 마치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처럼 이해되곤 한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창조’의 결과는 무엇인가?